

문재인 “전북을 환황해 경제권 중심지로 조성”

“호남에서도 소외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을 전북의 친구가 돼 풀어가겠다”... 압도적 지지 호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가 “전북을 환황해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3일 문 전 대표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의 후보를 만들어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전북 출신 장관은 한명도 없고 차관 4명이 전부였고, 예산차별, 민생불대는 말할 것도 없었다”며 “이제 전북은 전북이라는 말씀들이 외 나오는지 그 심정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을 전북의 친구가 돼 풀어가겠다”며 “인사차별을 바로 잡아 전북의 인재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북의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혁신도시 중심의 연기금, 농생명 금융거점을 육성하겠다”며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키우겠다. 탄소산업 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롤타워를 삼고 탄소밸리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육성과 청외대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설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등 전북 관광 변화 등을 전북 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23일 문재인 전 대표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의 후보를 만들어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범취미민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며 “있는 일자리는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을 환황해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교체와 인사 탕평, 일자리 혁명으로 전북의 상실감을 해소하겠다”며 “전북의 삶을 바꾸는데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혁신도시 중심의 연기금, 농생명 금융거점을 육성하겠다”며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키우겠다. 탄소산업 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롤타워를 삼고 탄소밸리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과 대개혁, 새 대한민국 건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냈다.

문 전 대표는 “차기 정권은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고 게다가 적폐 청산 사회 개혁 등 하려고 하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국민적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김광수 발의 '건보료 개편안' 복지위 통과

국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고액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오늘 여야 합의로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저소득층 606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행 9만 2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50% 가량 줄어들어 미약하나마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 보수후보 단일화 '신경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23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CJB 청주방송국에서 진행된 총선경 후보자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월호 인양, 박 전 대통령 신병, 이런 최악의 조건이 눈앞에 있다”며 “우와 진영의 사람들은 대동단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의 회동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내가 바른정당에서 만난 사람이 김 의원만이냐.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성태 의원도 만나고 다 만났다”며 “나 만나는데 그게 마치 무슨 큰 음모를 꾸미는 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선거 연대 얘기는 했다. 선거 연대는 해야 옳지 않느냐”며 “내가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난 그런 사람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친박 핵심 김진태 의원은 이같은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경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후보는 이미 다 후보가 된 것처럼 다른 당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친박 후보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과 탄핵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자유한국당은 보수후보 중심 정당으로 해서 당의 세력을 강화하고 돌아오는 보수민심을 결집시켜 민주당 후보와 양강 구도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가세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당 대 당 통합은 어려우려나 보지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인정하든지 해서 국민들 보기에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노련한 전략가로서 제가 자유스럽게 만나고 조정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선주자 재산... 안철수 선두

대선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단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대표는 1,200억원 가까운 재산을 신고,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국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17년 정치재산변동 공개목록'에 따르면 안 후보는 전년 대비 433억7,470만원 감소한 1,195억5,322만원을 신고했다.

그 다음으로는 바른정당의 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2, 3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의원은 48억3,612만원이었으며 남경필 경기 지사는 40억2,761만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26억8,572만원으로 9억8,100만원의 재산을 소유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뉴시스

도내 정치권, 세월호 “무사 인양·진실 규명”

민주당 “진실 밝혀져야”... 국민의당 “1073일의 세월 인양돼야”... 정의당 “책임 물어야”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도내 정치권에서는 무사 인양과 진실규명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세월호 인양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3년 동안 방치된 것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체조사는 물론 참사가 벌어진 원인에서부터 생존자 구조, 사망자 수습, 인양업체 선정의 배경과 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어제 능해수위에서 4.16 세

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법사위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1073일의 세월이 온전하게 인양돼야 한다”며 “이 모든 국가적 불행은 키우고 진실을 숨긴 박근혜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세월호에는 아직 9명의 미수습자들이 남아 있다”며 “혹여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세심함에 만전을 기해 미수습자들이 온전히 수습되길 희망하고 세월호의

선체가 진실을 밝혀줄 증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세월호 인양으로 진실을 향한 행적부터 시작해 참물원인과 구조상황, 선체인양의 과정까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진상을 밝혀져야 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통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바로 그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국가 권력의 무능함에 대한 대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부족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성의 ‘보급차리’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